

유 원 재
 건축사사무소 다건축
 by Yoo Won-jai, KIRA

책이 가르쳐 주지 못한 것들

travel is best teacher of architecture



페리보트 위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뉘을 수 있다.

‘시간이 많을 때는 경제적 여유가 없고, 바쁠 때는 여유 돈이 생겨도 쓸 만한 시간이 없는 것’ 묘한 아이러니겠다.

건축을 전공한 아들이 대학 졸업 후 2년여 동안을 자기 인생 목표를 찾기 위해 방황하였다. 건축사의 행로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자식이 다른 분야로 전향하여도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아무래도 건축의 솔잎을 먹어야겠다는 본인의 의사는 기분을 묘하게 했다. 뒤늦은 건축실무의 시작이라서 일 년 동안 기본자세를 훈련시킨 후, 송충이의 맹훈련을 친구 건축사사무실에 보냈었고 지금은 내가 직접 데리고 있다.

자기 자식을 가르친다는 게 어렵다는 옛말이 맞는다는 걸 체험하기도 하고, 아들 역시 종종 아버지와 소장



1. 용안사정원 축소모형 - 시작장애자는 조각으로 보게 한다
2. 용안사 내부 - 비워진 조그마한 정원에 거대한 우주를 담고 있다
3. OXY의 원래 모습
4. OXY를 부수고 새로 들어선 실용적 건물

을 혼동하는 힘든 경우를 겪는 것 같기도 하다. 허나 가끔은 부자간의 아름다운 건축설계실무를 즐길 수 있는 남모르는 즐거움도 있다.

수주한 설계 프로젝트를 통한 실무교육이 가장 좋은 훈련이 되겠지만, 요즈음은 주변상황이 그런 작업 기회를 충분히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다이내믹한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차, 일본 엔화가 기록적으로 하락 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이틈을 이용해 아들과 함께 아주 저렴한 일본 건축 배낭여행을 4박5일(2007.02.11~2007.02.15) 동안 다녀오기로 했다.

부산항을 오후 4시에 출발하는 거대한 페리보트는 밤새 항해하여 다음날 오전 10시 오사카에 도착한다. 이 배는 일본혼슈와 시코쿠 사이로 항해하므로 세토나이카이 국립 해상공원 경치들을 즐길 수도 있다.

오사카 인근에는 고베, 교토가 있어 불만한 건축물이 많이 있고, 교토에는 전통 일본건축물이 많다. 특히 일본 현대 건축가들이 어떻게 그들의 문화유산을 오늘날 현대건축에 잘 접목시키고 있는지를 또 그들의 건축적 유산이 어떻게 잘 관리, 보존 되고 있는지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우선 아들에게 여행 중에 보고 싶은 건축물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일정도 짜게 하였다. 자유 여행이므로 계획을 스스로 잘 세우지 않

면 효율적 견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이런 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좋은 실무경험이 된다. 이를 위해선 그 도시를 파악해야 하고, 시간계획에 따라 볼 건축물을 선정하는 작업은 그 자체가 설계과정이라 본다.

오사카, 고베, 교토에는 다다오 안도의 작품들이 많다. 특히 무명 시절 10평의 좁은 사무실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가며 대단한 열정과 초심으로 이뤄낸 그의 초기 작품들을 보면 치열한 작업정신을 물씬 느낄 수 있다.

이 광경들은 그의 저서 『연전연패』라는 책에 설명되어 있어, 요즈음 힘든 상황의 우리 건축사들이 읽어본다면 용기와 아울러 공감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으리라. 마침 묵고 있는 숙소 부근에 안도의 초기 작품 'OXY' (1987년 준공)가 있어 일본을 떠나는 날 마지막 일정으로 준비된 자료(사진, 도면, 주소)를 가지고 찾아 나섰다.

조그만 뒷골목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정확한 주소와 사진을 보고도 생각보다 그리 쉽게 찾아지지는 않았다. 작가의 혼이 담겨있는 작품이었을까?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는 통과의례처럼, 어떤 대가인 것처럼... 같은 곳을 맴 돌 뿐이었다. 이상하다. 왜 일까?

갑자기 내리는 부슬비는 지도를 적셨고 아직도 대낮이건만 어두워진 하늘은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40여 나라를 여행 한 아버지로 서도 아들 앞에 체면이 서질 않았다. 틈틈이 배워둔 일본어로 꽤나 많은 행인들에게 물어보았을 터, 그 중 몇몇 이는 몇 바퀴를 같이 돌아



뒷골목과 만나는 TIME'S-1의 공간은 정겨운 설계인 반면 장사는 잘 되지 않고 있다.

주기까지 했는데 말이다.

지나가던 한 젊은이는 동네 한 블록을 돌다가 자기의 눈을 의심하며 같이 지도를 몇 번이고 찾아보았다. 정확한 주소와 사진위로 건물이 안 보인다면 미안함과 아울러 이상하다는 표정만 남기고 떠났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생각지도 못한 것에서 시간이 흘러 마지막 날의 일정은 날씨처럼 엉망이 될 듯 했다. 아들은 다음을 기약하자고 하였지만, 나의 내적인 아쉬움이 오히려 꼭 보고 가겠다는 의지에 기름을 부어준 격이 되었다고 할까. 그러나 처음보다는 지친 기색으로 한 연륜이 있어 보이는 신사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그는 지도와 건물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

보았고 우리가 몇 번이고 봤았을 거리를 차분히 응시하더니 한 건물을 가리켰다. 안도의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이상한 건물이 바로 앞 모퉁이에서 있었다.

아! 왜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 나는 안도의 작품을 감히 허물고 무표정하고 실용적인 건물로 신축 하리라고는 미처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게 애쓰며 찾던 건물이 없어진 허탈감 뒤로, 준엄한 사회의 평가를 받아 작품이 보존 혹은 멸실된다는 것은 어떠한 전율과 더불어 더 큰 현장 학습이 되어버렸다.

원래 'OXY'는 안도의 트레이드마크인 노출 콘크리트 건물로서 폐쇄적 외관이 영업적인 점포의 입장에서 경제적 효과는 적었을 것이고, 실용적인 공간이 그만큼 적었지 않았나하는 개인적인 해석을 해보았다.

어제 교토에서 본 안도의 'TIMES-1'도 일본 전통 뒷골목을 현대 건축물에 재현한 건축적 개념은 근사했으나, 현실적인 입주자의 입장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빈 점포들이 쓸쓸스럽게 보였다.

'OXY' 건물도 건축 관련 방문객들만 찾아와 사진이나 찍어가는 게 건축주나 점포주로서는 영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건축은 아름다운 외관이 아니라, 그 기능으로 경제 사회 속에서 건 강히 살아남아야 한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으며, 그 작품을 본 것 보다 더 교훈적이었던 기회가 된 셈이다. 또 하나는 아들에게 어렵더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목적을 이뤄야 한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싶었다. 짧은 기간 동안 큰 것을 얻어간 여정이었다. ■